



# 군복 너머 이천에서 피어난 이야기

군장병·군가족 이천살이 수기공모전 수상 작품집



군장병·가족 대상 이천시살이 수기공모전

00

# 군복 너머, 이천에서 피어난 이야기



군복 너머  
이천에서  
피어난 이야기

군장병·군가족 이천시살이 수기공모전  
수상 작품집

**공모분야** · 군장병 부문: 이천에서 군 생활 속 일상과 에피소드 등  
· 군가족 부문: 이천에서 군 가족으로 살아가며 마주하는 소소한 행복 등  
(초등부·청소년부·일반부)

**공모대상** 이천에 거주하는 군장병 및 군가족

**접수기간** · 접수: 2025년 9월 8일(월) ~ 10월 15일(수)  
· 결과 발표: 2025년 11월 5일 (예정)

**제출방법** 1) 단체 접수: 부대 담당자 취합 후 이메일 제출  
2) 개인별 접수: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가능

**접수방법** 이천시통합도서관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로드 후 제출  
· 이메일 접수: woori74@korea.kr로 제출 \*부대별 취합 후 제출  
· 우편접수: 이천시 설봉로 81번길 50, 이천시립도서관 1층 사무실  
· 방문접수: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 3개 방법 중 택 1  
※ 원고 제출시 소속(전역)부대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시상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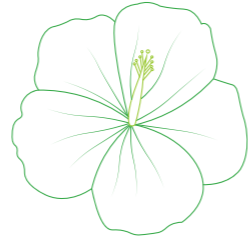
부문	구분	시상내역			
		군장병 부문	군가족 부문		
			초등부	청소년부	일반부
체험 수기 (이천에서의 군 생활 및 군가족으로서의 경험)	최우수	1	1	1	1
	우수	1	1	1	1
	장려	3	3	3	3
	계	5	5	5	5

※참여자 전원 기념품 증정 (훈격: 이천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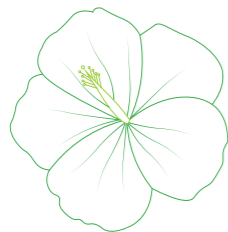
**참가자 혜택** 공모전 참여자 전원 기념품 증정 및 시상식(문화체험 및 강연회)초청  
(\* 시상식 참여는 수상자 우선이며, 인원 초과 시 공모전 응모 선착순으로 참여가능)

**문의** 이천시도서관 ☎ 031-644-4350

## 목차 Contents



발간사	..... 5
심사평	..... 6
군장병부	총 대신 약을 들고, 또 다른 국방을 지키며 ..... 9
	군복 너머 나의 이야기 ..... 15
	군인 부부 삶 너머, 이천에서 피어난 우리 가족의 추억 ..... 18
	군복 너머, 너 말야 ..... 21
	이천에서 살다! 행복의 씨앗을 심어 웃음꽃을 피우다 ..... 23
초등부	원더우먼 군인 엄마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이야기 ..... 31
	군인 가족의 겨울, 이천에서 피어난 추억 ..... 33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 ..... 35
	아빠 회사에 놀러간 날 ..... 36
	부대에서 행사를 했어요 ..... 37
청소년부	추억은 헬기를 타고 ..... 39
일반부	애매함의 미학 ..... 44
	우리의 시작이 머문 곳, 이천 ..... 47
	나를 찾아봐 ..... 50
	설봉산의 바람과 함께하는 나의 이천 ..... 53
	이천에서의 사계절 ..... 56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 59



##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도서관과장 김은미입니다.

이 천혜의 자연과 따뜻한 시민정신이 함께하는 이천에서, 군복을 입고 혹은 군가족의 이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께 깊이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장병·군가족 이천살이 체험 수기집』은 “군복 너머, 이천에서 피어난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천시에 거주하며 군생활 또는 군가족 생활을 해오신 장병 및 가족 여러분의 진솔한 경험을 함께 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군복무와 군가족의 삶은 그 자체로 현신이자 책임이며, 동시에 지역사회·가족·개인 간의 교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익숙하지만 소중했던 일상, 낯설지만 가까워진 동네의 풍경, 동료 및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떠오른 작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수기집이야말로 그 ‘보이지 않는 땀방울’과 ‘감춰진 마음’이 글로 기록되어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지는 소중한 장입니다.

또한 이천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군과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더욱 튼튼히 하고, 군사·지역·가족이라는 세 축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수기집에 수록된 글 하나하나가 ‘지역에서 살아가는 군장병’, ‘이천에서 살아가는 군가족’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의미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수기를 기고해 주신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그리고 심사를 맡아주신 이운영 작가님과 정귀영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기집이 이천시민들에게는 군과 가족의 삶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군장병 및 군가족 여러분께는 자신이 살아온 하루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천이라는 지역에서,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함께 걸어가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이천시 도서관과장 김은미

## 심사평

『군복 너머, 이천에서 피어난 이야기』

### 생성형 AI가 이길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의 목소리

이천시도서관에서 주최한 뜻깊은 수기 공모전, 『군복 너머, 이천에서 피어난 이야기』의 심사를 맡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표합니다. 군 장병과 군 가족 여러분이 이천에서의 일상과 군 생활 속에서 겪은 희로애락을 솔직하게 풀어낸 작품들을 읽는 내내, 깊은 감동과 공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단순히 뛰어난 문장력을 겨루는 자리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특정한 시간과 공간(이천)에서 겪어낸 고유한 경험을 언어라는 매개체로 세상에 내어 보이는 용기의 장이었습니 다. 우리는 글을 통해 여러분의 군복 뒤에 감춰진 인간적인 고뇌,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 과정, 그리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발견한 이천살이의 행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작품이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울림을 주었기에,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AI 시대, 글쓰기의 진정한 의미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이 텍스트를 창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순식간에 방대한 정보를 조합하고, 완벽한 문법과 수려한 문체로 매끄러운 글을 씁니다. 혹자는 “이제 글 쓰기는 필요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공모전에 출품된 수기들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질문에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sup>Generative AI</sup>은 ‘경험의 데이터’를 학습할 수는 있지만, ‘경험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천의 거리에서 군복을 입고 걷던 당신의 발의 피로를 알지 못하며, 낯선 부대에서 가족을 기다리던 당신의 심장이 느꼈던 불안과 기대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글’이란, 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나의 경험’이라는 독보적인 데이터베이스에 기반을 둔 서사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글은, 오직 자신의 생생한 경험에 근거한 글입니다. 그것은 인공지능이 수억 개의 텍스트를 학습해도 단 한 줄도 대신 써줄 수 없는, 유일무이하고 대체 불가능한 기록이며, 바로 그것이 진정한 ‘글’의 가치이자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수기는 기계가 만들어낸 정답지 같은 글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땀과 눈물로 직접 걸어 올린 ‘생생한 증언’이자 ‘살아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심사를 진행하며 경험을 통해 길어내는, 인간만이 전달할 수 있는 감정의 깊이와 온도를 고스란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군 장병과 군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천에서의 소중한 경험들이 앞으로의 삶에 좋은 기억과 추억이 되어 삶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그들’에 작은 ‘햇살’이 되길 바라봅니다.

대표 심사위원 이윤영 작가 드림



## 군복 너머 이천에서 피어난 이야기

### 군장병부

최우수	권순민 (국군교도소)	총 대신 약을 들고, 또 다른 국방을 지키며
우수	송재현 (55사단)	군복 너머 나의 이야기
장려	한용구 (7군단)	군인 부부 삶 너머, 이천에서 피어난 우리 가족의 추억
	권예찬 (55사단)	군복 너머, 너 말야
	오혁준 (육군특수전사령부)	이천에서 살다! 행복의 씨앗을 심어 웃음꽃을 피우다



## 총 대신 약을 들고, 또 다른 국방을 지키며

권순민

국군교도소

서른. 제 이름 앞에는 항상 '약사'라는 전문직명이 따라붙었습니다. 수년간의 학업과 치열한 국가고시를 거쳐, 약국 조제실의 하얀 가운을 입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 몫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실습길 지하철에서 약학 기사를 읽고, 주말에는 재테크 정보를 찾아다니며 '인생 2막'을 착실히 설계하던 도시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른의 문턱을 넘어선 어느 날, 제 삶에서 애써 외면하고, 가슴 한 칸으로 밀어내 놓았던 '군 입대'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친구들의 축하 속에 결혼을 준비하거나, 혹은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던 또래들과는 달리, 저는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군인'이라는 이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막연한 현실은 한여름의 신기루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 발이 땅에 박히는 듯한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미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성취와 안정을 맛본 터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미지의 세계로 뛰어든다는 사실이 버거웠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와서 군대라니, 고생이 많겠다"는 걱정 어린 시선과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한 척 웃었지만, 속으로는 저 역시 같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 나이에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어린 후임들과 어색하지 않게 지낼 수 있을까?', '남들보다 늦게 시작하는 군 생활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남길까?' 끝없이 이어지는 질문들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회색빛 불안감이 저의 서른을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군대라는 곳은 제 삶의 정지 버튼이자, 이미 짜여진 미래 설계도를 헝클어뜨리는 예기치 않은 변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순간, '군 복무'가 아닌 '나 자신'과의 치열한 내면의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시작된 저의 군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일반적인 훈련소의 고된 훈련이나 야전에서의 전투 훈련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제가 배치받은 곳은 바로 이천의 '국군교도소 의무실'이었습니다. 처음 특수 보직을 받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의무실이라는 공간이 품고 있는 낯선 무게감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곳에서의 제 주된 업무는 약사로서의 핵심 역량인 약 조제였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약장을 정리하고, 처방전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무실장님의 처방에 따른 환자 기록 관리, 약 처방 및 조제, 약 정리 및 재고조사, 약의 유효기간을 꼼꼼히 확인하는 시효조사를 담당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필요한 경우 기간병, 간부, 그리고 수감자들의 국군수도병원 진료 예약을 돕고, 가끔은 의무실을 방문하는 수련생들의 혈당 및 혈압 측정을 관리하는 일도 저의 몫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약과 숫자를 세며 보내는 시간은 언뜻 기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모든 행위는 이곳의 특수한 구성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국군교도소 의무실은 단순히 약을 조제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제가 만나는 환자들은 다른 군 부대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이자, 때로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구금된 수감자들,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기간병과 간부들까지, 다양한 배경과 사연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고통뿐만 아니라, 미묘한 사회적, 심리적 갈등까지도 스며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그저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려 애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하루는 단순히 약을 조제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약제병으로서의 역할은 약사의 전문성 너머, 한 사람의 삶에 깊이 개입하는 특별한 소명임을 이곳에서 처음으로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국군교도소 의무실 약제병으로서 제가 겪은 경험 중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환자들과의 교감이었습니다. 특히 수감자들을 대할 때는 일반적인 약국에서와는 다른 미묘한 감정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신체적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선택과 후회, 사회로부터의 단절이 가져온 불안감과 외로움이 그들의 몸과 마음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조제한 약을 건네며 짧게 눈을 마주칠 때, 저는 그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와 고독을 희미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받아가는 약은 단순히 염증을 가

라았히거나 통증을 멎게 하는 화학물질이 아니라, 잠시나마 세상과의 연결, 그리고 치유에 대한 희망을 전달하는 작은 통로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늘 무뎠던 표정으로 약만 챙겨가던 한 수감자가 며칠 뒤 제게 다가와 아주 작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소 약을 건넬 때조차 눈을 마주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는 제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무관심했던 이의 작은 변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저에게는 세상 어떤 화려한 칭찬보다 값지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곳에서 저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확인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약사의 역할은 단순히 약을 조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희망과 인간적인 온기를 담아 전달하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처럼 처방 기록을 관리하고, 약을 조제하고,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모든 행위가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따뜻한 돌봄과 존중의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물론 환자가 수감자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군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기간병들, 그리고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지쳐 의무실을 찾는 간부님들 또한 저의 중요한 환자들이었습니다. 두통이나 감기 같은 단순한 증상으로 오는 경우도 많았지만, 의무실은 때로는 그들에게 '마음의 안식처'처럼 기능했습니다. 혈압과 혈당을 재어주는 수련생들을 보며 잠시나마 자신들의 병을 이야기하고, 동료 병사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시간은 군 생활의 작은 활력소였습니다. 약을 조제하는 짧은 시간 동안 병사들이 털어놓는 고민과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서, 동료 군인으로서 그들의 고단함을 함께 느끼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 역할이 단순히 약사라는 전문인에 그치지 않고, 누군가의 하루를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창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저를 더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약장 정리를 하거나 재고를 조사하며 약통 하나 하나를 손으로 만질 때마다, 이 약들이 군인 한 명 한 명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곳에서 겪은 재미있는 에피소드 중 하나는 '나이'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서른 살인 저는 의무실에 있는 몇몇 간부님들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를 드릴 때도 살짝 어색했고, 병사들과 농담할 때는 '형'이라는 호칭 대신, 가끔 '삼촌'이나 '아저씨'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덕분에 후임들이 저를 더 편하게 생각하고 쉽게 다가와 속마음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딱딱할 수 있는 군대 의무실 분

위기가 저의 존재 덕분에 한결 부드러워지고, 인간적인 온기가 더해지는 것을 느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꼼꼼하게 관리하는 수도병원 예약 업무나 처방 기록 업무가 그들의 빠른 회복에 기여할 때, ‘아저씨 고마워요!’라는 짧은 한마디는 제 모든 고됨을 씻어주는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소소한 교감들이 군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을 꼽으라면, 매년 무표정하게 들어와 약만 받아 돌아서던 한 병사의 뒷모습이 늘 무겁게만 느껴졌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좀처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짧은 대화조차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그저 묵묵히 직접 조제한 약을 건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약을 건네자 그가 고개를 들고 저를 보며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조금 괜찮아졌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상태 보고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전문적인 의료 기록보다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저에게 나눌 만큼 마음을 열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의무실이 단순히 약을 조제하고 전달하는 곳을 넘어, 누군가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내면의 회복을 경험하는 ‘인간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약사로서의 제 존재 의미가, 약이라는 물질을 뛰어넘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로 확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의무실에서의 하루는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군 생활은 그 안에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국군교도소 의무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갇혀 지내다 보면, 때로는 세상과 단절된 듯한 기분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높은 담장과 제한된 시야는 저를 고립시키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말 정기 외출을 통해 마주하는 이천의 풍경은 답답했던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이천 시내를 거닐 때마다, 제 안에는 작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도시를 감싸고도는 넓은 들판, 계절에 따라 푸른빛에서 황금빛으로 다채롭게 변하는 자연의 색깔은 제 내면의 소란을 잠재워 주었습니다. 흙냄새 짙은 시골길을 걷거나, 인근 주민들이 땀 흘리며 일구는 밭을 바라볼 때면, 삶의 근원적인 활력과 소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지역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따뜻한 인심을 가진 상인들의 미소 속에서 저는 잠시 군복을 벗고 ‘저’라는 한 사람의 삶을 다시금 되찾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현실에서 바쁘게 살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삶의 여유와 자연의 위대함을, 이곳 이천에서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에게

는 작은 위로이자, 군 생활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는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군 생활을 그저 버텨야 하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했던 저는, 이곳 이천의 품속에서 ‘군 생활도 감사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라보게 된 것은 이런 작은 순간들 덕분이었습니다. 바쁜 사회 생활 속에서 놓치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을, 이천의 고즈넉함과 사람들의 소박한 삶 속에서 다시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이 주는 편안함과 이웃들의 따뜻한 시선이, 저에게는 가장 든든한 마음의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때로는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떼를 보며 마음의 평화를 얻고, 맑은 날 밤하늘의 쏟아지는 별들을 보며 제가 지닌 고민이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지 깨닫기도 했습니다. 이천의 바람은 그렇게 군복 너머의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며, 마음을 어루만지고 성장시키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군 생활 5개월 차, 저의 이천에서 약사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의 초심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사회에서 바쁘게 일할 때는 수많은 환자들을 마주하면서도, 기계적인 업무 처리 속에서 한 명 한 명에게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곳 국군교도소 의무실에서는 오히려 한 사람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고, 그들의 내면을 헤아리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약을 건네는 것은,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고립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저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고, 앞으로 어떤 약사가 되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했습니다. 처음에 군 생활을 시작하며 엄습했던 많은 두려움과 걱정, 스트레스는 점차 사그라들었고, 이제는 이 군 생활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약학적 지식을 더 깊이 쌓아 궁극적으로는 환자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약사가 되겠다는 확고한 목표 의식이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저의 이 군 생활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인격적으로 성장시키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30대 문턱에서 마주한 이천에서의 군 생활은 저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성장 기록이 되었습니다. 군 복무라는 예기치 않은 전환점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천에서 군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며, 동시에 약사로서의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복을 입고 의무실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배



운 것은 단순히 약제병으로서의 약 조제 기술이나 행정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법, 복잡한 사연을 지닌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 그리고 작은 배려와 진심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었습니다. 입대 전 짓눌렸던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은 이제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감사와 배움, 그리고 '군 복무 기간 동안 자신을 발전시키고, 약학적 지식을 더 깊이 쌓아 환자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약사가 되겠다'는 새로운 희망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이천의 자연이 건넨 위로, 그리고 약사로서의 특별한 경험들이 제 자신을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군 생활이 제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고 깊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었음을 확신합니다. 사회에서 바쁘게 약만 조제하던 과거의 저였다면 결코 얻지 못했을 삶의 귀한 통찰들을, 이 군복을 입고 보낸 5개월 동안 얻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이력이 아니라, 제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게 한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앞으로 사회로 돌아가 다시 약사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이천에서의 이 특별한 시간과 경험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국군교도소 의무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피어난 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저를 지탱하는 굳건한 힘이자, 환자 한 명 한 명의 아픔을 단순히 약으로만 치료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더욱 따뜻하고 진정한 약사가 되게 해 줄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천의 하늘 아래, 서른의 약사이자 한 용사가 발견한 삶의 의미와 깨달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서른은 이렇게, 군복과 약사 가운 사이에서 피어난 새로운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 군복 너머 나의 이야기

송재현

55사단

나는 스물여덟에 군대에 왔다.  
14년 동안 유도선수로 살아오며 부상도 많았기에 당연히 공익으로 갈 줄 알았다.  
하지만 2024년 신체검사 규정이 바뀌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나와 비슷한 증상을 가진 친구들은 공익요원으로 복무를 마쳤지만  
더 오래 선수 생활을 했던 나는 결국 2025년에 현역으로 복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엔 억울했다. 화도 났다.  
“왜 나만 이 나이에 와야 하나?”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다.  
나이 차이가 큰 동기 그리고 나보다 어린 선임에게 ‘재현아’라고 불릴 때는 정말 어색했다. 하지만 군대에서는 나이보다 계급이 우선이라는 걸 알기에 점점 이해하며 지내고 있다.  
늘 선배로 살아오던 시간이 많았기에 내가 후임으로 지내는 건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적응했고  
지금은 모두와 잘 어울려 지낸다.

군대는 참 신기한 곳이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생활관 내 옆자리 조준호 상병은 매일 노래를 부르고 과한 리액션으로 우리를 맞이한다.

김동욱 상병은 성대모사의 달인이다. 간부나 동기 흉내를 내며 항상 웃음을 준다.

정의성 상병은 우리 분대장으로 나이는 나보다 어리지만

정말 책임감 있고 든든한 사람이다.

그리고 어디에나 '에이스'가 있으면 '고문관'도 있는 법

우리 생활관의 이민준 상병은 항상 지각하고 청소도 빠뜨린다.

단체생활이 어색한 선임이지만 그래도 미워할 수 없는 매력이 있다.

내 앞자리 김하람 일병은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나도 20대 초반에 첫 연애를 했던 터라 그 마음을 잘 안다.

부디 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길 바란다.

그리고 최진우 일병은 의대 편입을 꿈꾸며 매일 연등을 하며 공부한다.

그 모습이 참 기특하다.

마지막으로 막 전입 온 박민 이병과 김지후 이병은 이제 막 3주가 지났다.

아직 어색하고 힘든 시기겠지만 이곳에서 조금씩 성장하길 바란다.

내가 20대 초반을 지나왔기 때문일까.

후임의 마음도 동기의 고민도 선임의 부담도 모두 이해가 간다.

군대는 남자라면 모두가 한 번쯤 겪는 곳이다.

부디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전역하길 바란다.

그리고 20대 초반엔 누구나 막막하다.

불투명하고 때로는 무섭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다.

부딪히고, 배우고, 성장하면 된다.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늦은 나이에 군대에 왔지만 나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곳에서도 자기개발과 훈련에 최선을 다하며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오늘도 군복을 입는다.





# 군인 부부 삶 너머, 이천에서 피어난 우리 가족의 추억

한 용 구

7군단

나는 군복을 입은 채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 엄격한 군인으로만 여겼다. 그러나 아들이 태어나고 아버지라는 새로운 계급장을 가슴에 달면서부터, 내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피어나기 시작했다. 2011년 11월, 우리 가족은 경기도 이천으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아들을 얻은 기쁨과 함께, 나는 용기를 내어 육아휴직을 결정했다. 아내와 나는 군인 부부로서 나라를 위한 사명도 컸지만, 그 순간만큼은 가족이 최우선이었다. 이천으로 이사 온 첫날, 늦가을의 따스한 햇살 속에 아내와 아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군복 너머의 삶, 이천에서 피워가자”

이천에서의 하루하루는 따뜻한 일상의 연속이었다. 코로나 시기에 외부 활동이 어려워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지만, 이천시는 우리 가족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이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처음 찾았을 때가 떠오른다. 낯설고 서툰 아빠 육아에 지칠 때쯤, 센터의 육아 상담 선생님은 환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었다. 그분은 “아빠도 참 잘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토닥여 주셨고,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놀이방에서는 마스크 너머로도 행복이 묻어나는 우리 아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센터의 씨앗 장난감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빌려 올 때면, 아이는 마치 보물 상자를 선물 받은 듯 두 눈을 반짝였다. 집에서 그 장난감으로 노는 아이의 모습은 우리 부부에게 작은 공연을 보는 즐거움마저 주었다. 매년 열리는 행복한 우리 아이 사진 콘테스트에도 가족이 함께 참여했다. 처음에는 그저 추억을 남기자는 마음이었지만, 해가 갈수록 사진 속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가 쌓여 갔다. 첫해에는 육아지원센터 놀이방에서 방긋 웃는 아들, 다음 해에는 물놀이장에서 신나게 물놀이하는 아들....이천에

서 보낸 시간이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기록될 때마다, 우리 가족의 추억도 함께 만들어지고 있었다.

군인으로 살아오며 매일 새벽같이 눈을 뜨고 움직였지만, 육아휴직으로 당장 부대에 출근하지 않아도 나는 규칙적인 생활로 아이의 하루를 챙겼다. 아침에는 설봉공원으로 유모차 산책을 나갔다. 설봉산 자락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아들의 볼을 어루만졌다. 군인으로서의 내 걸음은 언제나 분주하고 바빴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이의 작은 손짓 하나에도 걸음을 늦추었다. 아이와 함께 산책은 내게 정말 소중한 추억으로 마음속에 남았다.

점심때가 되면 아내와 통화를 하며 아들과 함께한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천 아이랑 카페에서 놓고 있었던 이야기, 설봉공원에서의 산책 이야기 등을 전했다. 그러면 아내는 “든든한 우리 남편 덕분에 마음 놓고 임무에 집중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곤 했다. 우리가 함께 군 생활을 하면서도 아이를 잘 키워 나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켠이 뿌듯했다.

세월은 흘러, 아이는 어느덧 어린이집에 다닐 만큼 성장했다. 아이가 커가는 만큼 우리 부모도 함께 성장하며 많은 추억이 쌓여 갔다. 한여름이면 이천 물놀이장 개장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푸른 하늘 아래 물놀이장의 물줄기가 시원하게 솟구치면, 아들은 양손을 높이 들고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내 심장은 여전히 군인의 것처럼 힘차게 뛰었지만, 그 박동에는 기쁨과 사랑이 가득했다. 물놀이를 마치고 나를 향해 달려오는 아들을 번쩍 들어 올리면, 햇빛에 반짝이는 물방울들이 아이와 나를 감싸안았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느 훈장도 부럽지 않은 아빠로서의 금빛 순간이었다.

가을이 오면 이천 농업테마파크에서 열리는 쌀문화축제에 가족이 함께 참여했다. 노랗게 익은 벼가 누렇게 물들 때, 축제장에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함께 퍼졌다. 우리 가족은 함께 떡 만들기 체험을 하고 맛있게 먹으며 가족의 단맛을 음미하는 법을 이천에서 배울 수 있었다.

이천에서의 삶은 우리 가족에게 쉽고 성장의 터전이 되어주었다. 낯선 도시였던 이천은 이



제 정겨운 우리 동네가 되었고, 군 복무지 너머 가족의 안식처가 되었다. 때때로 육아와 군인의 길을 동시에 걷느라 지칠 때면, 이천의 풍경과 사람들이 건넨 작은 위로들이 떠오른다.

요즘 가족과 함께 설봉공원 호숫가를 거닐면서 문득 이천에 처음 왔던 날의 내가 떠올랐다. 군인으로서 늘 사명감에 무게를 두고 살던 내가, 이제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 한 가정의 남편으로 이렇게나 마음이 풍요로워졌음을 느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해준 곳, 바로 이천이었다.

마음을 다해 이천에 감사의 편지를 쓰고 싶다 “군 너머의 삶을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을 품어준 이천시, 고맙습니다.” 이천에서 피어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군복을 입은 내 모습 뒤엔 언제나 가족의 사랑이 함께하고, 그 배경에는 아름다운 이천의 추억들이 반짝이고 있을 것이다. 이천에서 보낸 따뜻한 나날들을 가슴에 안고, 나는 다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러니 이제는 안다. 나의 삶에는 군인 이상의 소중한 이야기가, 이천에서 피어난 가족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족의 작은 이야기가 이천의 많은 가족들에게도 따뜻한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나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천의 아침을 맞는다.



## 군복 너머, 너 말야

권예찬

55사단

그날은 8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부대 일정으로 저희 4중대는 중대장님과 용사 10명과 함께 장애아동 수영장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영장에 도착했을 때 솔직히 이런 봉사활동은 처음이라 마음속으로는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자 긴장과 걱정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한 아이와의 만남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처음엔 낯을 많이 가려 제 손을 피하던 아이였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저와 함께 물속에서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물장구를 치며 장난을 칠 때마다 터지는 그 아이의 웃음과 장난치며 뛰어노는 다른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니 저도 모르게 어색했던 제 얼굴에도 미소가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 건 그저 아이들과 함께 놀아준 것 뿐인데 이렇게 순수하고 맑은 웃음으로 보답을 받는다니...’ 그 짧은 순간 단순한 봉사가 아닌 서로 기쁨을 주고받는 경험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그렇게 어울리며 같이 놀다 보니 문득 제 동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 동생 또한,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난 이 아이들에게는 이렇게나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대해주고 있는데, ‘나는 과연 내 동생한테도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줬던가?’라는 생각에 저 자신을 되돌아보며 성찰하는 경험이 되기도 했습니다. 활동 중 부모님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시는 모습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조용히 휴식을 취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학부모님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봉사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에게도 작은



쉽이 되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학부모님들 외에도 이천시장님과 여러 관계자님들도 함께 계셨습니다. 봉사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아이들을 살피시는 모습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진심과 책임감이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보여주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이들과 부모님을 생각하는 분들임이 느껴지면서 ‘이천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존경심 또한 생겼습니다.

활동이 끝날 무렵, 아이와 저는 행사장에서 제공해주신 간식으로 피자과 음료를 나눠 마시며 수영장에선 사진도 한 장 찍었습니다. 그 사진은 지금도 제 관물대에 붙여두고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힘을 얻기도 합니다.

헤어질 때 아이는 “내년에도 또 봐요”라고 말했고, 그 아이의 어머니께서는 감사의 말을 전해 주셨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순간 헤어짐에선 아쉬움이 조금 남았었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손길과 관심만으로도 큰 위안과 행복을 줄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반복되는 군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경험은 제게 일상의 소중함과 제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는 순간이었고, 몸은 조금 피곤했을지 몰라도 마음만은 한층 더 풍성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봉사를 통해 제가 분명히 배운 건 처음에는 봉사가 단순히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었지만, 어느 순간 봉사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심을 나누는 일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꼭 제 진로인 간호사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작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따뜻함과 책임감, 마음의 울림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이런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행동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앞으로 제 삶과 마음가짐에 길잡이가 되어 줄 소중한 배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저하지 않고 참여하여 제가 느낀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군복 너머, 그 하루 속에서 만난 너 말야, 짧지만 특별했던 그 시간 덕분에 내 앞으로의 삶 속에서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어.

“고마워, 친구”

## 이천에서 살다! 행복의 씨앗을 심어 웃음꽃을 피우다

오 혁 준

육군특수전사령부

나는 군에 몸을 담으면서부터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발로 밟고 구름바다 위에서 아침을 맞으며 지내왔다. 새싹이 움트는 봄의 신선함을 느끼며 걸어야 했고 더운 여름날에 뜨거운 햇살을 벗 삼아 바다 위에 머물러 있었다.

저녁노을이 아름다운 가을, 산속 열매와 과수원 주인아저씨가 던져주는 사과 하나에 감사함을 느꼈고 추운 날씨에 눈을 녹여 밥을 해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에 선하다. 또한, 황무지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을 하는 곳에서도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임무이자 인생 수업이라 생각하고 견디면서 27년을 군에서 살아왔다.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추억이자 군 생활의 원동력이고 노하우가 되어 있다. 그 기억들이 앞으로 나와 가족의 삶에 많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것들을 일 생활에 적지 않게 활용하고 있다.

나름 치열하게 군 생활을 해왔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즈음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나 결혼도 하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 한 가족의 가장이자 구성원이 되어 그때의 기억 속 경험을 우리 가족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나는 이 글을 통해 이천과 우리 가족의 지난 추억을 되새겨보려 한다.

나에게 ‘이천’은 무수히 많은 이정표 속, 집으로 가는 길이 반 남았다고 생각하며 지나치는 정도의 지역이었다. 또한, 학창시절 이천은 ‘쌀’과 ‘도자기’가 유명한 정도로 기억된다. 훈련했던 지역도 아니어서 그런지 이사 오기 전까지는 첫째 아이 4살 때쯤, 수영장이 같이 있던 어

는 호텔을 한번 방문했던 것이 전부였다.

한 번의 인연이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었을까? 부대가 이천으로 이전하였고, 근무했던 부대와 보직이 바뀌며 어느 순간 나는 기억 속에 스쳐 지났던 이곳에 새로운 등지를 틀게 되었다. 부대가 바뀌며 만나는 동료들, 우리나라에 있어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장소에 오는 것, 환경이 바뀐다는 부분에 대한 조금의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다. 하지만 부담감과 두려움은 하루가 다르게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져 지금은 이곳이 편안한 안식처로 느껴진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추천하는 정보를 가지고 먹는 것 위주로 가까운 곳을 찾아다녔다. 깔끔하고 맛있는 집들도 많지만, 이곳은 '숨은 맛집'이 참 많이 있다고 느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골목, 숲, 논 인근에 있는 집들이 자석처럼 발걸음을 향하게 한다. 특히, 예전에 우리네 어른들이 논, 밭일하시다 새참이나 식사로 드시던 그런 형태의 한식이 내 군침을 돌게 한다. 아마도 이천은 '쌀'이 유명한 곳이니 우리 어른들이 드시던 그 든든한 밥 한 상의 정성이 지금 까지 이어져 온 듯하다.

연녹색 친구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며 푸릇한 향기가 가득한 어느 봄. 인터넷을 검색하던 아내가 '이곳'을 가보자 추천했다. 아이들과 가벼운 복장으로 그곳으로 향했다. 차를 타고 목 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몇몇 친구들이 반겨주고 있었지만, 전통한옥과 먹거리, 카페 등등 여느 축제에서도 있는 그 정도라고 느꼈으니 초반에는 약간의 실망감도 없잖아 있었다. 하지만 곳곳에 보이는 이곳 친구들에게 희망을 걸고 친구들과 이정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정표를 따라가다 약간의 땀이 송골송골 맺힐 어느 순간 우리 가족의 눈빛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이내 아이들의 감탄사가 쏟아져 나오고 세상이 노란 물감을 뿌려 놓은 듯 노란 세상 친구들이 우리를 반겼다.

맛다! 봄에는 노랗고 가을에는 붉은 물결이 군락을 이룬다는 '산수유 마을'이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산수유 꽃길과 돌담길을 걸으면서 한 폭의 수채화 속에 들어와 그림 속 주인공 양 노란 세상을 즐기고 만끽했다. 집 앞 한두 그루에서 산수유 꽃을 보며 그저 노란 꽃, 붉은 열매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군락지는 처음이었다. 그 도화지 속에 우리

는 저마다 자세를 취하며 봄이 주는 싱그러운 선물을 우리만의 노란 추억으로 남겼다.

한산한 저녁, 가까운 곳에 별빛 정원이 있다는 정보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이들과 '덕평'으로 향했다.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그리 멀지 않는 곳에 화려하게 빛나는 곳으로 향했다. 휴게소 옆에 자리 잡은 '별빛 정원 우주'는 우리 가족의 눈을 홀리기에 충분했다. 형형색색의 별빛 속에 오랜만에 아내와 같이 앉아 핸드폰에 추억을 남겼다. 며칠이 지났을까 지방으로 여행을 다녀오던 처형 가족들도 집으로 가기 전 마지막 추억의 장소를 이곳으로 정했다고 만나자고 했다. 아이들 네 명은 땅 위에 내려앉은 우주에서 신나게 유흥을 즐겼다. 지금도 우리 가족과 아이들은 그날의 수많은 별빛을 그리워하고 있다.

나는 바다를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매년 바닷가로 캠핑, 여행을 다녔었다. 이곳에 등지를 튼 이후, 작년과 올해를 빼고는 바다를 찾았던 것 같다.

그렇다! 여름의 스트레스는 누가 뭐래도 물놀이이다. 뜨거운 햇살이 우리 몸을 붉게 달구더라도 물속에서 떠다니는 자유로움과 물과 함께 느껴지는 시원함이 필요하다. 차로 멀지 않은 거리에 워터파크가 오라고 손짓한다. 바다를 가더라도 매년 더위와의 한판승을 위해 그곳을 찾는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긴 채 떠다닐 수 있다. 물론 애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이지 아이들이 어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놀아줘야 한다. 아이들은 서로 잠수시간을 재달라고, 수영을 배웠다고 자랑하다가 코에 물들어갔다고 눈물을 보이기도 한다. 물놀이 시간이 지나면 지친 몸을 이끌고 사우나를 지나 찜질방에 들어선다. 피로를 풀기 위해 우리는 우리 집인 양 한적한 곳에 자리 잡고 소리소문없이 각자의 방식대로 시간을 보내거나 삶은 달걀을 먹으며 피곤함을 날려 보내곤 한다. 이 또한, 이곳의 묘미 아닐까 싶다.

어느 날, 설봉공원 산책로를 걷다가 잠시 더위를 피해 도자기 전시관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도자기 설명을 해주시는 어른께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열정이 너무 넘치셨던 기억이 난다. 이천이 도자기가 유명해진 이유, 토기와 도자기, 축복받은 토양, 도자기의 발전 등, 아이들에게 우리 것의 소중함과 하나를 빛기 위한 장인의 노력, 앞으로 다른 눈으로 바라볼 전통에 대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 다시 가면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다.

음악분수에서도 추억은 계속된다. 조금 일찍 도착한 우리는 가운데 데크에 자리를 잡았다. 좀 덥기는 했지만, 아이스크림과 아이스아메리카노로 더위를 달래며 이야기보따리를 풀었다. 해가 점점 넘어가고 노을이 물들기 시작할 때쯤, 음악과 함께 분수가 뿜어져 나왔다. 어둠이 깊어 질수록 연주에 맞춰 흔들리는 분수와 조명은 아이들의 혼을 쏙 빼가기 충분했다. 아이들은 어느 순간 부끄러움도 잊은 채 데크 한가운데서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며 내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었다. 아이들의 몸짓은 이내 내 어깨의 반동을 자연스레 끌어내며 우리는 그렇게 춤추는 분수에 취해버렸다.

금빛 바다가 펼쳐지고 설봉산이 색동옷을 입는 가을은 이천의 자랑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전국 어디든 평야 지역을 가면 가을에 금빛 바다는 어디서든 볼 수 있지만 이천은 시골 같으면서 도심과 가까이 어우러져 있는 과거와 현재가 합쳐진 곳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듯하다. 금빛으로 물든 눈에서는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다는 '이천쌀'이 기다림에 보답하듯 바람과 함께 물결을 이룬다. 아이들에게 조금 있으면 우리가 먹는 쌀이 되고, 자연과 농사짓는 할아버지의 땀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설명을 덧붙인다. 옛날 선조들이 수확 철 기뻐했던 모습은 아마도 지금보다 더 넓었을 금빛 바다를 보고 느끼셨던 보람이었으리라 싶다.

가까이 있는 설봉산, 도드람산의 단풍은 우리나라 명산 못지않게 다양한 색깔이 조화를 이룬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느 순간 저절로 발걸음이 향해가고 있고, 잘 정비된 등산로를 따라 우리의 단풍 속 여행이 시작된다.

결혼기념일에는 아내와 나는 설봉호수 산책로를 따라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호수 산책로에 쓰인 여러 가지 문장들은 우리를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듯,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해 주고 있었다. 도로를 없애고 새롭게 단장한 광장을 걸을 때는 둘만의 시간을 축하해 주듯 단풍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햇살과 마주쳐 '샹들리에'처럼 저마다의 방식으로 반짝였고 호수의 분수는 팡파르를 터뜨리듯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오늘이어서 더 아름답다.'라고 느껴지는, 참으로 예쁜 결혼기념일이었던 기억이 난다.

아이들과 산책할 때는 가지각색의 색종이들이 내가 더 진하다고 자랑하고 있었고, 풀숲의

별레들도 아이들에게 신기한 친구처럼 다가와 주었다. 아이들이 곧 헤어질 친구를 만난 듯 아쉬워 손을 뻗어 인사를 하려고 하면 그 녀석들은 놀란 듯 발 빠르게 도망가거나 날갯짓을 하며 사라지곤 한다. 개중에 한두 마리는 아이들의 아쉬움을 아는지 다가와 눈을 마주친다. 다가올 추운 겨울 잘 이겨내고 다시 만나자고 작별 인사도 잊지 않는다. 아이들에게는 가을과 단풍을 경험하고, 곤충과 사람이 거리감 없이 공존하는 천연 자연학습 공간이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옷장 깊숙이 숨어있던 두꺼운 옷들이 포근하게 감싸주는 겨울. 나는 도심에서만 살다 보니 사람, 건물, 차 등이 눈과 어우러져 있는 모습에 대한 기억이 많다. 하지만 이천의 겨울은 내가 살던 지역과는 다름이 느껴졌다. 눈이 내리는 양은 비슷해 보였지만 눈이 우리에게 눈꽃을 뿜내며 하얗게 머무는 시간은 상당히 길었다. 햇살이 눈과 만날 때면 눈이 부실 정도로 깨끗한 하얀 꽃! 우리 아이들도 공원과 산길에서 눈의 시원함과 하얀 세상을 느끼고 있었다.

아들은 눈사람 만들기 한창이다. 옆에서 딸은 이글루를 만든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손이 시려 입김으로 녹이면서도 더 크게 만들겠다고 계속 굴러댄다. 둘째는 모양새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중간에 멈추고 나뭇가지와 낙엽을 모아 오빠에게 가져다주며 같이 눈을 굴렸다. 크다, 머리가 너무 커서 가분수처럼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다. 아이들은 눈, 코, 입, 팔까지 만들어 눈사람을 만들었다. 친구가 생긴 양, 어깨동무에 이야기까지 한다. 우리는 그렇게 친구와 사진을 찍고, 친구를 추운 아파트 광장에 놓아둔 채 손을 흔들며 헤어졌다. 아이들은 아쉽고 걱정이 됐는지 베란다에서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멀지 않은 곳에 눈썰매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과 첫 눈썰매장을 찾았다. 나도 처음, 애들도 처음 가보는 곳이라 '애들이 탈 수 있는 건가? 괜찮은 건가?'라는 걱정이 가득했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애들도 애들이지만 내 세상에 온 듯, 내가 더 신나게 타지 않았나 싶을 정도였다. 소리를 지르며 쏜살같이 내려가는 아이들, 뒤따라 더 소리 지르는 나. 한겨울 동장군도 우리가 즐기는 모습에 추위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애들한테는 좀 미안하지

만 어릴 적 동심의 세계로 나도 즐거운 여행을 다녀왔다. 그 후로도 겨울이 되면 나는 아이들과 동심의 세계로 여행을 떠난다.

때때로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맺혔던, 마스크와 함께였던 나날. 그 시기에도 아이들은 자라고 있었고 나는 아이들에게 추억을 선물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부대 통제에 따라 멀리 가지도 못하고 아무나 하고도 접촉이 두려웠던 시기다. 그때 산 넘어 작은마을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 가족은 도자기 마을 '에스파크'를 찾았다. 한산한 거리를 거닐며 여러 가지 모양의 집과 작업실을 관람하고 전기 오토바이를 빌려 시간을 보냈다. 때로는 아이들이 한적한 그 산책로를 뛰어다니는 모습에 나름대로 만족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흘러 다시 축제가 열렸고 우리 가족이 다시 찾았을 때 그곳은 우리가 봐왔던 마을이 아니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북적였고 오토바이는 줄을 서도 빌리지 못할 정도였다.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전의 생활로 돌아와 웃으며 거리를 걸었다. 나는 그 시기가 지나간 것에 감사해하면서도 한산했던 그때가 왜 그리 생각이 나던지 모르겠다. 사람 사는 향기가 나는 이곳에서 여러 가지 볼거리와 체험들이 있어서 우리는 감사한 새로운 경험을 맞볼 수 있었다.

우리 가족에겐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야기, 도서관이 있다. 나는 비교적 늦게 책을 접하기 시작했지만, 아내는 생각이 달랐다. 책의 중요성을 알고 있던 아내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잠들기 전 책을 읽어줘야 한다고, 아무리 피곤해도 두세 권은 자장가처럼 읽어주곤 했다. 잠자기 전 읽던 책을 시작으로 주말에는 도서관을 찾는다. 처음에는 인근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다가 어린이 도서관과 시립도서관을 알게 되었다. 나는 도서관이 단순히 책이 있는 곳, 책을 읽는 곳으로 알고 있었지만,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많이 있고 방학 때나 주말에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요즘은 아내와 함께 10시 프로그램 신청 시간을 기다린다. 아내가 먼저 아이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 바쁘게 손가락을 움직인다. 처음에는 낯선 친구들과 환경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프로그램 찾아봐 달라고 하는 걸 보니 나름의 흥미가 생긴 듯하다.

아내의 생각이 옳았다. 아내의 노력은 책 읽는 습관을 지닌 아이들로 자라게 하였고, 집에 서나 차를 타고 움직일 때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 그러다 보니 나도 휴대폰을 보다가 '책을 읽어야 하는 건가...' 하면서 살며시 책을 찾아 펼치는 분위기가 조성되곤 한다. 자주는 아니지만, 아이들과 독서 토론할 때면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생각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순수한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볼 때면 신기하면서도 기특하다. 최근 인근에 새로 도서관을 개장했다고 하는데 그곳에서도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나누고 싶다.

집과 멀지 않은 곳에서 다양한 여가생활이 가능하고, 더위와 추위를 즐기며 우리 가족이 '추억'을 쓸 수 있도록 계절마다 자연 친화적인 축제와 볼거리가 있는 곳!

교통과 물류의 중심답게 사통 발달한 도로와 멀리서도 집이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랜드마크, 수변공원과 캠핑장, 구수한 풍경의 전통시장, 이천시 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연주회와 각종 문화 공연 등, '이천'을 글로 담기에는 나의 종이가 너무 작음에 아쉬움을 느낀다.

끝으로 군복을 입은 무뚝뚝한 나에게 변화와 추억을 선물하는 우리 가족과 이천에 이 글을 통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우리 아이들이 도시와 자연을 함께 경험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큰 행복과 여유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제2의 고향이 될 이천에서 우리 가족의 행복의 씨앗을 심고,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추억을 키워 건강한 웃음꽃이 환하게 피기를 간곡히 소망한다.



# 원더우먼 군인 엄마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이야기

김 주 아

마장초 2학년

우리 엄마는 멋진 군인입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하고 용감한 특전사 군인이죠. 물론 지금은 다른 곳에 근무하지만, 여전히 저와 우리 가족은 이곳 마장에 살고 있어요. 우리 엄마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멋진 군인들처럼 씩씩하고 책임감이 강하시죠. 그래서 저는 엄마를 원더우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군인 엄마와 함께 하는 건 재미있는 일은 맞지만, 사실 가끔은 아주 조금 힘든 일도 있긴 합니다.

엄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군복을 입고 출근 준비를 하거든요. 추운 겨울이면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도 않았는데 엄마는 부지런히 출근 준비를 하시죠. 우리는 잠에서 덜 깬 눈을 비비고 방에서 나오면, 엄마는 꼭 우리 남매의 아침을 챙겨주세요.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놀 수 있어”라고 하시죠.

학교에 가는 길은 언제나 나에게 즐거운 시간입니다. 저는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가는데 항상 먼저 나와서 기다리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즐거워요. 우리는 손을 잡고 도란도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면서, 어제 본 만화 이야기, 새로 산 인형 등 끝없는 이야기가 우리의 등갓길을 가득 채우거든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조끼를 입은 할머니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큰 깃발을 들고 자동차들을 멈추게 한 뒤, “조심해서 건너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 하고 말씀해주시는 할머니 목소리는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요. 딱 한 개 뿐인 횡단보도지만, 덕분에 우리는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어요.

학교 옆 오천공원을 지나갈 때면 공원을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는 늘 푸른



## 군복 너머 이천에서 피어난 이야기

### 초등부

최우수	김 주 아 (마장초 2학년)	원더우먼 군인 엄마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이야기
우수	원 동 찬 (증포초 6학년)	군인 가족의 겨울, 이천에서 피어난 추억
장려	박 승 훈 (이황초 2학년)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
	이 산 (나래초 1학년)	아빠 회사에 놀러간 날
	이 태 환 (나래초 1학년)	부대에서 행사를 했어요



잔디와 나무들, 그리고 계절마다 피는 예쁜 꽃들을 보며 상쾌한 기분으로 등교할 수 있어요.

어느덧 학교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학교 정문 앞에는 교장선생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환한 얼굴로 “좋은 아침! 우리 마장초 친구들” 하고 우리에게 한 명 한 명 인사를 건네주세요.

우리 동네는 이렇게 친절하고 따뜻한 분들과 함께하는 등곳길 덕분에 우리 동네가 참 좋아요. 하지만 엄마가 부대에서 당직 근무를 서는 날은 아주 조금 쓸쓸하기도 해요. 밤에 잘 때 엄마가 옆에 안 계시는게 너무 무섭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는 할머니가 우리 남매를 돌봐주세요. 그래도 엄마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 엄마에게 전화할 때면 원더우먼 엄마는 항상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데 덕분에 걱정은 사라지고 편하게 잠에 들죠.

퇴근하고 돌아온 엄마는 분명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셨을 텐데도, 피곤한 내색 없이 우리를 꼭 안아주면서 “오늘 학교생활은 어땠니?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았니?” 하고 다정하게 물어봐주세요. 엄마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지만,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만큼 크다는 거겠죠?

우리 엄마가 군인이라는 사실은 나에게 큰 자부심이에요. 그리고 나를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할머니, 늘 나를 반겨주는 우리 동네의 친절하고 이웃 주민들, 함께 웃고 뛰어노는 친구들,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너무 행복해요.

나는 우리 군인 엄마가 자랑스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우리 이천 마장면이 정말 좋아요.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앞으로도 씩씩한 원더우먼 엄마처럼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랍니다.

## 군인 가족의 겨울, 이천에서 피어난 추억

원 동 찬

증포초 6학년

나는 초등학교 6학년이다.

우리 아빠는 군인이고, 나는 ‘군인 가족’이다.

아빠는 가끔 밤에도 근무를 하고, 어떤 날에는 며칠 동안 훈련을 가서서 집에 안 계신다.

5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겨울날이었다.

그날, 우리 가족은 아빠의 부대 발령으로 이천시로 이사 오게 되었다.

군인 아빠를 따라 새로운 도시로의 이사는 낯설고 두근거리는 마음이 가득했다.

추운 겨울이라 그런지, 이천시의 첫인상은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이천으로 이사 왔을 땐 솔직히 조금 걱정됐다.

친구들도 다 헤어지고, 새 학교는 낯설었으니까.

하지만 이천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따뜻하게 시작되었다.

5학년 첫 학기에, 나처럼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게 된 것이다.

그 친구 덕분에 이천시 리틀야구단 행사에도 초대받아 함께 응원하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날 이후, 이천은 점점 나에게 낯선 도시가 아니라, 친구와 추억이 쌓이는 곳이 되었다.



이천은 서울처럼 복잡하지도 않고 시골처럼 심심하지도 않아서 딱 좋다.

또 공기도 좋고, 근처에 설봉호수나 공원도 많다.

설봉공원 축제에서는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코요테 공연을 보고 신이 났고, 도자기 축제에서 산 뱀 모양 도자기 인형은 지금도 내 책상 위에서 나를 반겨준다. 장호원 복숭아 축제에서 맛보았던 달콤한 복숭아의 향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장호원은 아빠가 근무하는 부대 근처이다.

어느 날, 아빠가 회식이 끝난 늦은 밤 차편이 애매하다고 하셔서 엄마와 나는 아빠를 데리러 간 적이 있다. 아빠만 오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차 문이 열리자 아빠와 함께 군인 삼촌, 이모들이 모두 기다리고 계셔서 깜짝 놀랐다. 나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지만 그 분들은 동생과 나를 귀엽다며 간식을 한아름 안겨 주셨다. 낯선 도시라 생각했던 이천이 그날부터 왠지 익숙하고 포근하게 느껴졌다. 군인 가족으로 살아가며 옮겨 다녀야 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아빠가 종종 말씀하신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게 제일 큰 행복이야.’ 그 말의 뜻을 요즘엔 좀 알 것 같다. 군인 가족이라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 대신 다른 사람들보다 ‘가족’이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다.

이천에서의 겨울은 낮설고 추웠지만 지금은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아 있는 겨울 이야기가 되었다. 나는 이제 중학생이 된다. 아빠가 어디로 발령 나도 엄마랑 나랑 동생이랑 같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 이천에서의 시간 덕분에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는 법”을 배웠으니까.

##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

박 승 훈

이항초 2학년

우리 아빠는 군인이다. 그래서 군인 행사가 있을 때 같이 갔다.  
그곳에서 선생님, 친구들, 내가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반가웠다.  
모두가 아빠를 멋있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다.  
나는 아빠가 군인이라서 자랑스럽다.  
그런데 가끔 걱정도 된다.  
만약 전쟁이 나면 아빠가 위험해질까 봐 무서울 때도 있다.  
하지만 아빠는 나라를 지키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멋지다.  
아빠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가 항상 응원하고 싶다.  
군인 가족이라서 특별한 날도 많고, 아빠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  
앞으로도 우리 아빠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일했으면 좋겠다.





## 아빠 회사에 놀러간 날

이 산

나래초 1학년

어제는 국군의 날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행사장에 놀러 갔어요. 거기에는 크고 멋진 탱크가 있었어요.  
 처음 보는 탱크가 신기해서 사진도 찍고, 앞에서 오래 구경했어요.  
 그리고 장갑차도 탔는데, 흔들흔들 재미있었어요.  
 군인 아저씨들이 타고 있는 경찰차도 봤어요.  
 멋진 군악대 공연도 봤는데, 음악이 신나서 따라 부르고 싶었어요.  
 행사장에서 맛있는 도시락도 받았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먹으니깐 더 맛있었어요.  
 무엇보다 제일 좋았던 건, 아빠 회사에 구경 간 거예요.  
 아빠는 군인이예요. 평소에는 아빠가 어디서 일하는지 잘 몰랐는데,  
 이렇게 직접 가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자랑스러웠어요.  
 군인 가족이라서 이런 특별한 날을 보낼 수 있어서 기뻐요.  
 다음 국군의 날에도 또 가고 싶어요!



## 부대에서 행사를 했어요

이 태 환

나래초 1학년

어제는 아빠 부대에서 가족을 초대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엄마랑 동생 하윤이는 부대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엄마가 하윤이랑 탱크를 탔다고 해서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학교에 가야 해서 같이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속상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집에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아빠도 집에서 저랑 많이 놀아줘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빠가 군인이라서 이런 특별한 일이 생겨서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아빠가 잘 놀아줘서 너무 좋아요, 정말 정말 많이 좋아요!





## 군복 너머 이천에서 피어난 이야기

# 청소년부

우수

박 주 완 (이천중 1학년)

추억은 헬기를 타고

## 추억은 헬기를 타고

박 주 완

이천중 1학년

저는 책을 무척 좋아합니다. 저희 관사 앞에도 작은 도서관이 있지만 더 많은 책을 보기 위해 이천 시립도서관에 자주 방문하지요. 저와 제 동생은 1층 가족열람실과 2층 문헌정보실에 자주 들러 보물을 찾듯이 책을 골라 읽습니다. 저보다 7살 어린 제 동생은 군 관사에서 살아서 그런지 군부대에 관련된 것을 매우 흥미로워 합니다. 그래서 제 동생은 이천 시립도서관 로비에서 군인 캐릭터가 그려진 포스터를 보고 더욱이 관심을 갖고,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어 이 기회로 우리 가족의 행복한 추억을 나누고 싶어 이 글을 써 내려갑니다.

저는 육군 항공사령부 관사에서 대부분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헬기 조종사이셨던 아빠와 꽤 오랜 시간동안 군부대 관사에 살면서 많은 추억들이 있는데, 그중 부대 개방행사를 하였던 5학년 가을, 가까운 가족들과 부대 개방행사에 함께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참 즐거운 마음으로 행사에 참석했던 기억이 특별히 떠올라 그때의 추억과 관사에서의 기억들을 담아 봅니다.

관사 아파트에서 주야로 날마다 들던 헬기 소리와 작게 보이는 헬기는 제 일상이었습니다. 헬기의 회전익 소리가 듣기에 거슬리지 않고 듣기에 너무나 익숙해 저서 안 들리면 허전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군부대와 가깝지 않은 곳에 살고 있어 그 소리를 자주 들을 순 없지만 체육시간에 야외에서 활동할 때 하늘에 나는 헬기를 보면 참 정겨운 느낌이 듭니다.

저는 개방행사에 참석한 적이 다른 때도 많이 있었지만 5학년 때 참석한 행사가 특히 기억에 남기도 하고, 항공부대와 가깝게 지내는 저에겐 부대에 들어가 구경도 하고, 체험도 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예전에 더 어릴 때는 아빠와 부대에 잠깐씩 들어가 보기도 했지만

헬기를 가까이서 자세히 보는 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발걸음을 아주 가볍게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행사장인 연병장에 들어가 행사 전에 가족들과 부스에 전시 되어있는 군용 정찰기를 구경하러 부스에 갔는데, 자그마한 헬기 비슷하게 생긴 드론이 여러 가지 일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내심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는 길이가 1m 정도 되어 보이는 군용 정찰기 비슷한 것도 있었는데, 구경하다 보니 부스 위쪽으로 군악대가 발맞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연 순서가 오지 않아 연병장 주변만 뱅뱅 돌고 있더군요. 사촌 친구가 그걸 보고 “떠돌이 군악대”라고 별명을 붙여주자 모두 한바탕 웃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와서 연병장 앞쪽 포토존으로 가보니 연병장 앞쪽에는 아파치, 치누크, 롱보우 아파치 등의 헬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아파치에 달려있는 기관총이며, 미사일, 커다란 호떡처럼 생긴 회전익에 달려있는 롱보우 안테나가 아파트에서 창문으로 볼 때보다 더 크게 보니 신기하고 무섭기도 하였습니다. 또, 커다란 버스처럼 생긴 치누크는 뒤쪽에 문이 있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줄로 만들어진 의자가 11자로 길게 있었습니다. 아빠가 공연이 끝나면 탈 헬기라고 말씀해 주셔서 헬기 탑승 체험이 더 기대 되었습니다.

곧,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김정희 이천 시장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시장님을 모실 정도로 큰 행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육군항공사령부의 역대 사령관분들과 현 사령관님께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저도 리더십이 많고, 저 분들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사가 모두 끝나자 연예인들과 태권도 시범단 등이 공연을 펼쳤습니다. 태권도 시범단은 송판 격파 공연을 했는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송판까지 격파하는 것을 보니 공연하시는 분들이 대단해보였습니다. 사촌들은 간식 부스에서 간식을 사와서 먹으며 보고 있어서 좀 배고팠습니다. 조금 뒤에 아빠가 추로스 하나를 사다 주셔서 맛있게 먹으며 깃발들을 들고 오는 의장대를 보았습니다. 무엇을 하나 보았더니 총을 돌리며 멋지게 행진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장대 공연은 흔하게 볼 수 없는 공연이라고 하여서 더욱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비디오를 녹화하면서까지 관람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재미있고 흥미롭게 행진을 보았습니다. 행진하다가 총을 떨어뜨리는 모습도 보였

고, 총을 돌리다 놓치는 것도 발견해서 더욱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군인 가족이어도 이런 경험은 쉽사리 해 볼 수 없을 테니 말입니다.

연병장에서의 공연이 끝나자 우리 가족은 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기다리던 헬기 탑승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했다는 수리온과 가장 큰 헬기인 치누크 몇 대가 늠름하게 큰 소리를 내며 대기 중이었습니다. 접수를 받는 곳에서 조금 기다리니 아까 그 헬기들이 지난 회 사람들을 태우고 출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낮 놓고 헬기를 보다 보니 조종복을 입고 있는 분이 오셔서 우리 가족 명단을 확인한 뒤 귀마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귀마개를 귀에 꽂고 그분을 따라가니, 헤드셋을 또 나누어 주셨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헬기에 탑승하러 가까이 가는 데 헬기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헤드셋을 안 끼고서야 도통 탈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헬기 뒤쪽에는 아까 연병장에서 본 것처럼 치누크가 뒤쪽 문이 열려있었습니다. 허둥지둥 자리를 잡고 앉아있으니 갑자기 몸이 붕 뜨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헬기 앞 조종실 창문을 보니 앞 헬기를 따라 우리 헬기가 이륙한 것이었습니다. 보기만 하던 치누크 헬기를 타고 날아오르니 참 가슴이 벅찼습니다. 계속 하늘로 올라가다가 직선 비행을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문이 작아 잘 보이지 않았지만 살짝 보니 관사 아파트, 관사 단지 내에 있는 교회, 멀리 설봉산과 손가락 손톱보다 작게 보이는 이천 시청까지 하늘위에서 보는 이천의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헬기 기체가 아래로 기울어지며 헬기가 다시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비행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헬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아 완전히 착륙하자 아쉽지만 하늘에 떠올랐다가 온 경험에 경이롭고 아쉬운 마음으로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런 멋진 헬기를 조종하시는 조종사 이셨다는 것이 실감이 되면서 아빠가 더욱이 멋진 영웅처럼 보이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 멀리서 소리만 듣고, 작게 장난감처럼 보던 헬기를 탄 경험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그때의 헬기 엔진의 떨림과 블레이드의 회전운동의 힘까지 정말 경이롭고 놀라웠습니다. 헬기를 타고 하늘을 날았던 그때, 저는 정말로 신나고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 추억은 일명 PX, 군마트에 대한 추억입니다. 저희 군 관사 아파트 옆쪽에는 군마트

가 있습니다. 제가 6학년 즈음, 엄마의 심부름으로 자주 들른 기억이 납니다. 거의 갈 때마다 헬기 소리가 나서 아주 즐겁게 심부름에 갔었죠. 군마트에 가면 국방부 마크가 저를 맞아주었는데, 전 그 마크를 볼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배의 닳과 쇠사슬위에 날개가 있고, 그 위에 별이 있었는데 국가에 헌신하시는 아빠가 있어 더 기분이 훈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의 심부름으로 군마트를 갈 때마다 저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룻길에 심부름 목록을 상상하는 것도, 물건을 구경하는 것도 말입니다. 군마트를 이용하면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엄마의 부탁을 받고 군마트에 갔는데, 엄마가 적어 주신 목록에 있는 물건을 모두 코너에서 골라 담고 계산대로 가서 바코드까지 찍고 카드를 꽂았는데, 그 카드가 체크카드가 아니라 제 교통카드였던 겁니다. '집에서 나올 때 제대로 확인할 걸'이라고 후회하며 물건을 잠시 카운터에 맡겨 놓고 집으로 재빨리 뛰어가서 체크카드를 가져와 더 길어진 줄 뒤에서 계산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 교통 카드와 체크카드가 같이 있어서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어른 없이 우리끼리만 가도 위험하지 않아 동생과 더운 여름에 아이스크림이나 간식을 즐겁게 고르며 사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덧붙여 군마트 제품들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것 등의 혜택을 알아가고, 크면서 개인적으로 생긴 경제 활동에도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빠가 군무원으로 공헌하고 계시는데 이 기회에 아빠와 함께한 군인 가족으로서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추억을 되새기며 웃음꽃을 피울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책 사랑과 군인가족의 추억이 이어져 이런 뜻깊은 공모전까지 응모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행복한 우리 가족의 추억들이 이천에서 더 많이 피어날 것입니다.



## 군복 너머 이천에서 피어난 이야기

### 일반부

최우수	이해량	애매함의 미학
우수	김기명	우리의 시작이 머문 곳, 이천
	황지환	나를 찾아봐
장려	조은정	설봉산의 바람과 함께하는 나의 이천
	오현지	이천에서의 사계절
	박진양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 애매함의 미학

### 이 해 랑

“이천에서 오셨어요?”

장호원에 있는 병원을 찾은 날, 접수 간호사님의 첫 마디였다. 내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연달아 피어올랐다.

‘분명 여기도 이천 장호원인데...’

잠깐의 정적 끝에,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이천 살아요. 장호원이에요”

간호사님은 웃으며 말씀하셨다.

“아이고, 장호원 사람은 이천에 산다고 안 해요. 그냥 장호원 산다고 하죠.

그것도 그럴 것이 병원 맞은편, 작은 다리만 건너면 충청북도 감곡이다.

우리 동네 장호원은 지리적으로 경계에 놓인 곳이다. 차로 10분이면 충청도 땅을 밟고, 반대 방향으로 5분이면 경기도 여주에 닿는다. 주소 상으로는 이천시지만, 나는 여주 지역화폐 카드도 늘 함께 챙긴다. 이도 저도 아닌 듯한 위치. 그러나 그 애매함 덕분에, 오히려 이도 저도 누릴 수 있는 삶이 시작되었다.

장호원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아이는 다섯 살이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날, 떨어진 꽃잎을 소복소복 밟으며 아이는 말했다.

“여긴 트랙터가 많아서 좋아.”

새로 다니게 될 유치원에 입학원서를 내고 온 날은 아이가 지금껏 살면서 본 트랙터보다 더 많은 트랙터를 본 날이었다. 나는 도시에서 잊고 살았던 자연의 시간에 천천히 적응해 갔다.

“엄마, 이건 무슨 밭이야? 저건 뭐 심는 밭이야?”

아이의 질문은 끝이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하며 겨우 답하느라 허둥졌고, 때론 모른다고 말하며 머쓱하게 웃기도 했다.

주말에 남편이 당직을 서는 날이면 아이와 단둘이 보내는 하루가 시작된다.

“우리 오늘 뭐 할까?”

“자연 탐험하고, 누룽지 먹기!”

아이의 소박한 바람에 웃음이 났다. 이천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정이었다. 복숭아밭이 펼쳐진 집 앞을 지나, 버스를 좋아하는 아이를 위해 ‘뚝버스’를 타고 논밭 쪽으로 향한다. 뽕죽하게 솟은 모를 만져보고, 고구마밭과 땅콩밭을 구경하고, 쑥쑥 자란 대파와 솜털처럼 부드러운 대파꽃도 살펴본다. 이것저것 알려줄 때마다 “먹고 싶다!”라고 말하는 아이와 함께 누룽지를 하나 사 들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 길이, 오늘 우리만의 탐험이자 행복이었다.

장호원 장날은 늘 풍성하다. 제철 채소와 과일, 야생화와 각종 모종까지 시장은 계절에 따라 색과 냄새, 소리를 달리한다. 봄이면 두릅, 냉이, 쑥, 달래 같은 나물과 통통하게 알이 짙찬 주꾸미가 시장을 채운다. 가을이면 여주와 이천에서 온 고구마, 땅콩, 배, 사과가 바구니마다 넘친다. 플라스틱 상자가 아닌 검은 비닐봉지에 가득 담긴 식품들을 흠 문은 채 들고 돌아올 때면 싱그러움이 투박함을 이겨버린다. 시장 입구에서 갓 튀긴 짜배기를 과삭 베어 물며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맛에 단돈 천 원으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든다. 오늘날만큼은 내가 주부 백단이 된 것만 같다.

장호원엔 대형서점이 없다. 하지만 장호원 읍내에서 차로 20분만 달리면 충북 음성에 있는 작은 독립 책방이 나온다. 소박하고 감성적인 공간 속에서 책장을 넘기다 보면 세상의 속도를



잠시 잊게 된다. 늦은 오후, 경기도 여주로 넘어가 아이를 하원시키고 장호원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한다. 이천, 여주, 음성. 이 세 지역을 하루에도 여러 번 넘나든다. 애매한 경계 위에서 오히려 다채로운 삶을 살아간다.

‘애매함’이란 이도 저도 아니라는 뜻이다. 경계에 서 있다는 말은 불안정함과 불편함을 내포한다. 군인 가족의 삶은 늘 그런 경계 위에 있다. 다음 달 이사를 해야 하지만 아직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일상, 애매한 시기에 전학이나 전입을 하는 상황들, 도시에서 떨어진 관사의 위치. 모두가 명확하지 않고 애매하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애매함’이란 이도 저도 맞는 것이다.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자연의 리듬과 여유, 매일 다른 풍경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풍요가 숨어 있다.

밤늦게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관문을 열기 전, 하늘을 올려다본다. 쏟아질 듯한 별들이 그 자리에 있다. 마치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고 별들이 나를 안아주는 것 같다. 비록 도시의 ‘역세권’은 아니지만, 나는 ‘별세권’에 살고 있다.

군인 가족의 손에 쥐어진 이 애매함은 어쩌면 다채로움을 열어주는 열쇠인지도 모른다. 그 속에서만 열리는 삶의 풍경이 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언제나 우리 손안에 있다. 오늘도 나는 이 애매함으로 하루를 가득 채운다. 그리고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간다.

## 우리의 시작이 머문 곳, 이천

김기명

평생을 서울에서 살아 온 제게, 군인 남편과의 결혼으로 시작한 장호원에서의 신혼 생활은 인생 첫 시골살이였습니다. 관사를 배정받은 날, 남편이 보내 준 관사 주소를 검색해보니 이천 시내와는 꽤나 먼 곳이였습니다. 나름 수도권인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외진 곳에 위치한 군부대 특성상, 배달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마트를 나가려면 차로 10분 이상 이동해야 했습니다. 운전이 아직 서툰 제게 차 없이는 생활이 어려워 보이는 낯선 환경이 조금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관사에 들어간 순간, 큰 거실 창 너머로 펼쳐진 산과 나무의 풍경이 마음을 포근히 감싸며 ‘이 곳이 우리에게 좋은 출발지가 되어주겠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배달이 되지 않는 위치 덕분에, 저희는 둘만의 신혼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마트에 가서 일주일치 장을 보고, 매일 저녁엔 인터넷에서 본 레시피를 따라 요리하며 오붓한 식사를 즐겼습니다. 가끔 집 밥이 물릴 때쯤, ‘똑버스’를 타고 장호원 읍내로 나가 5일장을 구경하며 외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말에는 창문을 활짝 열고, 산바람을 맞으며 책을 읽거나,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며 바쁜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던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무료하게 느낄 수 있는 주말이었지만, 저희에겐 서로에게 집중하고 진정한 휴식을 누리는 소중한 시간이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창밖의 산이 하얗게 덮인 겨울날, 저희에게 겨울 햇살보다 더 따스한 선물 이 찾아왔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던 그 날은 남편이 당직근무를 하는 날이였습니다. 오후에 임신테스트기 두 줄을 확인한 저는 이 소식을 얼굴을 보며 전하고

싶어 밤을 설치며 남편의 퇴근만 기다렸습니다. 새벽같이 눈이 떠져 거실로 나가자, 창밖으로 떠오르는 새해의 붉은 태양이 마치 우리의 새로운 가족을 축하해주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새해 첫날 오후, 남편의 근무취침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두 줄이 선명한 테스트기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보, 두 줄이야! 우리에게 새해 선물이 찾아왔어!”

이천 보건소에서 임신부 등록을 하고 받은 손바닥보다 한참 작은 손싸개를 열어보며, 비로소 우리에게 아이가 찾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이와 함께하는 단란한 가정을 꿈꿨던 저희의 생활은 아기를 위한 준비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에는 진암공원을 함께 걸으며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주말에는 청미도서관에서 육아 책을 읽으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공부를 했습니다. 임신 후기로 갈수록 운동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만삭엔 ‘햇사레 야간운동교실’에 참여해 신나는 음악에 맞춰 체조를 하며 활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임신으로 휴직을 하며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자, 옆 동네에 사는 남편 부대 동기 가족과도 친해졌습니다. 저도, 남편 동료의 아내도 주간에는 각자의 남편을 기다리며 홀로 시간을 보내야했기에 두 남편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해주었습니다. 함께 관사 앞 치킨 집에서 치킨을 먹기도 하고, 서로의 집에 초대해 식사하며 부대 이야기와 일상의 소소한 고민을 나누면서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름 초입에 나누었던 시원한 수박은, 한창 무더운 여름에 달콤한 복숭아로 돌아왔고, 집에 방문할 때마다 양손 가득 챙겨주는 그 든든한 친구 덕분에 가족이나 지인 없는 낯선 동네에서도 외롭지 않고 따뜻한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10일,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기를 안고 집에 처음 들어온 날, 둘만 살던 작은 신혼집에 아주 작은 존재의 숨결로 집안 가득 따뜻함이 채워졌습니다. 아기 또한 새로운 곳을 탐색이라도 하는 듯, 눈을 둥그랗게 뜨고 여기저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가, 우리가 함께 살아갈 집이야. 앞으로 엄마, 아빠랑 건강하게 잘 지내보자! 잘 부탁해~”

셋이 함께한 첫 목욕, 셋이 한 방에서 함께 잠든 첫날밤, 이 모든 처음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낯설었던 이천과의 첫 만남이 어느새 익숙해져, 우리는 이곳에서 새로운

처음을 만들고, 수많은 추억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밤낮 없는 육아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새벽 수유 중 창밖을 바라보면 흔들리는 나무 위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에서 피곤함을 이기고 새로운 하루를 활기차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보이는 맑은 가을 하늘은, 종종 아기의 마음을 알 수 없어 막막할 때 제게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24시간 이어지는 육아의 피곤함에 지치다가도, 관사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 아이들의 모습이 언젠가 우리 아이의 미래가 되겠구나’하는 생각에 미소지어 집니다.

이천에서의 첫 집을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는 많은 이사를 다니며 여러 지역에서 살아가겠지요. 하지만 결혼의 설렘과 새 생명의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었던 이천에서의 우리의 시작은, 우리 가족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가장 따뜻한 장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언젠가 아이가 자라 이천의 기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날이 오면, 우리의 시작이 담긴 이곳을 꼭 다시 찾고 싶습니다.





## 나를 찾아봐

### 황지환

아들이 입대했다. 평소 제 앞가림을 퍽 잘하던 녀석이었지만 막상 입대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섰다. 아빠인 나도 이럴진데 엄마인 아내는 고심하는 티가 더 많이 났다. 나는 진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아들의 훈련소는 진주. 부자가 군대 훈련소에 '진'돌림자를 쓴다는 농담을 하며 아들을 보냈다.

요즘 훈련소는 소통의 장소로 변했다. 밴드를 개설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아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 놓았다. 훈련소 중대장으로부터 카톡 인사말이 왔고 밴드 가입 권유를 받았다. 00대대 00중대 0소대 훈련병 000. 세상 참 좋아졌다. 예전에는 편지 한 통 오가는 게 다였는데 말이다. 나 대신 아내가 아들의 훈련소 밴드에 가입해서 이런저런 소식을 받았다.

입대 후 3주쯤 흘렀을 무렵 아내가 핸드폰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검지로 화면을 몇 번이고 뒤적이더니 이내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나보고 찾아보라며 핸드폰을 건넸다. 누굴 찾느냐고 물었더니 '아들'이라고 대답했다. 아내는 밴드에 실린 훈련병 사진들 가운데 아들을 찾다가 포기한 것이었다. 혈육을 대번에 찾을 줄 알았던 아내는 한참 동안 눈을 굴리다 발견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대수롭지 않게 아내의 핸드폰을 받아 화면을 응시했다. 곧 아내가 당황한 이유를 알았다. 핸드폰에 실린 훈련병의 사진은 고만고만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체구에 비

슷한 복장과 비슷한 두상이니 누가 누구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았다. 아들의 체형이 비대하거나 흘쭉하지 않고 눈에 띄게 잘 생겼거나 특징적이지 않다. 그냥 평범한 청년일 뿐이다. 한눈에 알아볼 재간이 없었다. 결국 나도 아내처럼 핸드폰 화면을 유심히 살피며 집게 손가락을 위 아래로 움직였다.

1중대, 2중대, 3중대... 밴드에는 각 중대 및 소대별 단체와 소그룹 사진, 훈련별 사진들이 빼곡히 실려 있었다. 쪽 넘어가다 사진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다. 한 눈에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 놓칠 수 없는 사진, 그건 바로 나였다. 네댓 명이 앉아 훈련을 받는 사진 속에 내가 딱하니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나를, 정확히는 30여 년 전 나를 발견한 셈이다. 30여 년 전 나의 훈련소 퇴소 사진과 꼭 닮은 녀석이 핸드폰 안에 담겨 있었다. 아내는 지나쳐도 내가 지나쳐서는 안 되는 사진이랄까.

훈련소 보낸 지 며칠 지났다고 아들을 못 알아 보냐는 너스레를 떨며 아내에게 핸드폰을 넘겼다. 아내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고만고만한 인물 사진들 중 꼭 집어낸 나의 스킬에 놀란 게 분명했다. 어떻게 이리 쉽게 찾았냐며 물어왔다. 나는 엄지손가락으로 내 얼굴을 가리키며 별스럽지 않은 듯 아내에게 말했다.

“나를 찾아봐”

나의 심플한 대답에 아내는 놀라면서도 심술이 나버렸다. 힘들게 낳아 애지중지 키운 혈육인데 본인이 아닌 아빠와 똑같으니 심통이 날만도 했다.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선 딱히 반발할 수도 없었던 게 아들의 사진이 남편과 똑 같았기 때문이다. 판박이가 이런 거라고 해도 될 정도였다.

외모만이 아니었다. 표정도 빼닮았다. 아들의 꿈한 낮빛이 30여년 전 나와 똑 같았다. 훈련



소 생활이 즐거울 리 없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자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앞날이 답답하기 마련이다. 그런 막막함이 드러난 표정이 부자간에 한 치의 오차도 없었다. 이래서 혈육이란 말을 쓰는가 보다.

최근 부친상이 있었다. 군복을 입고 장례식장을 찾은 아들의 모습이 늙름하고 든든했다. 그때 주변 친지 분들도 우리 부자의 판박이 모습에 놀랐다. 이산가족이 될 수 없는 운명인가 싶다. 아들의 군 입대로 나는 내 청춘을 다시 보는 기분이 들었다. 대개 자식이 군대에 가면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걸 실감한다고 하는데 나는 좀 다르다. 나 자신을 다시 보는 심정이다. 아들이 나처럼 무사히 건강하게 군대생활하기를, 자신을 좀 더 단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그랬으니 나와 똑 닮은 아들도 그러리라 믿는다. “끝”



## 설봉산의 바람과 함께하는 나의 이천

조은정

여러분에게 고향이란 어떤 곳인가요? 저에게 고향은 단순히 태어난 곳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뿌리와 같은 곳, 바로 이천입니다. 남편이 임관을 하고 소위 시절에 결혼을 한 이후, 저희 가족은 다섯 번의 이사를 거듭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새 보금자리를 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집을 싸 옮겨야 하는 생활은 군인가족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았습니다.

저의 신혼생활은 낯설고 특별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보금자리를 꾸린 곳은 경북 경산이었습니다. 부대가 산 위에 있어 군아파트도 산 중턱에 있어 주소도 산변지인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아직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한다는 기쁨 하나로 설레며 신혼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그 설레임 뒤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도 함께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고향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언제까지 머물 수 있을지 기약조차 없는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은 제게 낯설고 불안한 감정들을 안겨주었습니다.

경산에서의 생활이 조금 익숙해질 무렵, 우리는 충남 논산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논산은 남편이 교육기관에서 일을 했던 터라 더욱 바빠졌고, 저 역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큰 아이가 태어나면서 엄마로서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에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후 우리의 발걸음은 충북 금왕으로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9개월, 때로는 몇 년을 머물지 알 수 없는 생활이 반복되었지만, 어느새 이사와 정착이 우리 부부에게는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번 짐을 싸고 풀며 새로운 이웃과 인연을 맺고, 또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을 겪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의지하며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인천에서의 시간은 도시에 사는 다른 사람들처럼 분주했습니다. 둘째아이도 태어나고, 첫째 아이도 유치원을 옮기면서 다른 환경에 적응하기 바빴습니다. 바쁜 도시의 삶 속에서도 저희 가족은 작은 보금자리를 지키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인천입니다. 수차례의 이사 끝에 큰아이가 일곱 살 되던 해, 남편이 항공작전사령부에 발령을 받으면서 저희 가족은 인천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벌써 10년째, 큰아이는 어느새 열여섯 살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인천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과 저는 여전히 인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인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언제나 기다림과 적응의 연속이었습니다. 여섯 번의 이사 동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대부분의 시간을 부대에서 보내야 했기에, 아이들과 집안을 지켜내는 것은 제 몫이었습니다. 때때로 홀로 서 있다는 무게감이 크게 다가왔고, 숨 가쁘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의 삶을 지탱해 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설봉산입니다. 주말이면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설봉산을 찾습니다. 평소에는 쌓이고 쌓인 피로와 걱정으로 마음이 무겁지만, 산을 오르는 동안만큼은 그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때때로 설봉산 입구에 서면 다시 돌아갈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봉산성을 지나 땀이

흐르고 숨이 차오르는 계단을 올라 정상에 서면, 잠시 고민했던 순간도 사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에서 탁 트인 하늘과 설봉호수를 내려다보면 그 순간만큼은 군인 가족으로서의 어려움도, 아이들을 키우며 홀로 감당해야 했던 고단함도 잠시 잊게 됩니다.

산길을 따라 내려올 때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큰 힘이 됩니다. 마치 저의 마음을 알아주듯, 지친 일상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렇게 설봉산은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산이 아니라, 함께 웃고, 대화하고, 추억을 쌓아온 힐링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군인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흔들림이 많은 삶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함 속에서 늘 긴장해야 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버텨내야 합니다. 그러나 설봉산에서의 주말은 저희 가족에게 안정과 평화를 안겨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충전된 마음으로 다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었고, 그 힘이 있었기에 군인가족으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인천은 낯설고 힘들었던 시간이 시작된 곳이자, 동시에 그 시간을 견디게 해주고 성장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고향입니다. 설봉산에서 얻은 위로와 치유 덕분에 저는 인천을 더 이상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닌,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린 고향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군인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고향 같은 존재가 곁에 있다면 그 길은 큰 힘이 됩니다.

인천에 살고 있는 군인가족 여러분, 군인가족의 하루하루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로 옮겨야 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생활, 가족이 군에서 보내는 긴 시간, 그리고 그 빈자리를 묵묵히 채워내야 하는 시간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혼자 남겨진 듯한 외로움이 들고, 스스로 강해져야만 하는 현실이 벽차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인천은 단순히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쌓여 고향 같은 따뜻함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특히 설봉산의 푸른 숲길, 인천의 아름다운 풍경은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작은 일상과 행복 속의 웃음, 함께 걷는 발걸음, 그리고 가족을 위한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든든한 삶의 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천에서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 이천에서의 사계절

### 오 현 지

우리 가족이 이곳 이천에 이사 온 지 어느덧 1년이 되어 간다.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부터 이사를 다니며 살아온 나에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일은 늘 주어진 숙제였고, 낯선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배움이였다. 그렇게 성인이 된 나는 또다시 군인의 아내가 되어 남편과 함께 방방곡곡을 옮겨 다니며 살아가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잦은 이사가 힘겨운 일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일상 속 작은 여행이자 새로운 기회가 된다.

사실 '이천' 하면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도자기 축제를 구경하러 왔던 기억 외에는 크게 아는 것이 없었다. '맛있는 쌀이 유명한 곳' 정도로만 알고 있던 이천.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이천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매력적인 곳이었다. 무엇보다 계절 따라 풍성하게 열매 맺는 과일과 다양한 자연의 변화가 이천살이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다.

우리 가족이 이곳에 처음 도착한 건 작년 초겨울이었다. 첫눈이 내렸던 어느 날, 창밖으로 하얗게 내려앉은 눈을 보며 앞으로 펼쳐질 이천에서의 일들이 기대되었다. 이천의 겨울은 조용하고 깊은 눈 풍경이 인상적이었다. 낮게 드리운 나무에 소복이 쌓인 눈을 만지고, 입에 넣어 보며 좋아하는 아이의 웃음을 카메라로 담았던 기억. 그리고 눈 내린 산책길을 가족이 함께 걷고, 작은 눈사람을 만들며 웃었던 기억은 지금도 따뜻하게 남아 있다.

겨울이 지나고 찾아온 봄, 개나리를 포함해 각양각색의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길을 걸으며 아이는 처음 보는 봄꽃의 이름을 하나하나 물었다. 아이와 함께 민들레 흙씨를 불고 토끼풀 반지를 만들며 또 하나의 추억 한 조각을 만들었다. 봄꽃뿐만 아니라 각종 두릅 등 각종 나무의 새순을 찾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봄 햇살 속에서 가족이 함께 보낸 그 시간은 어느 봄날의 동화처럼 느껴진다.

여름에는 근처 계곡으로 피서를 떠났다. 맑은 물에서 발을 담그고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식혔다. 집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계곡은 사람도 많이 찾지 않고 조용해서 올 여름 우리 가족만의 피서지가 되었다. 집 근처 농장에서 복숭아를 수확하는 모습도 처음 보았다. 달콤한 복숭아 향이 퍼지던 올해 여름은 이천의 풍요로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계절이었다.

이천의 가을은 어떻게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이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지나간 자리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눈발은 천천히 황금빛으로 물들어 간다. 아이와 걸었던 푸른 산책길에는 땡그란 알밤들이 떨어져 있었다. 우리 가족은 곧 펼쳐질 억새밭, 잘 익은 벼이삭이 고개를 숙인 논길, 수확의 기쁨이 함께하는 계절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다.

처음에는 단순히 "주위에 복숭아 농장이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여름이 되어 달콤하고 향기로운 복숭아가 집 앞에서 바로 수확되는 모습을 보니 신기하기만 했다. 덕분에 나는 올해만큼은 지금껏 살면서 먹어 본 복숭아 중 가장 맛있는 복숭아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간혹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심심하지 않냐, 외롭지 않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오히려 아기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체험 공간과 나들이 장소가 많아 하루하루가 바쁘다. 계절마다 열리는 축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자연 속에서 즐기는 소박한 체험들은 아이에게는 배움이 되고, 나에게는 쉼이 된다.



무엇보다 이천은 깨끗한 자연환경이 주는 여유가 있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히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내 삶의 속도를 조절하게 한다.

군인 가족의 삶은 언제든 또 다른 지역으로 발길을 옮겨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천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천에서의 나날은 내 인생에서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자연과 함께하는 일상의 소중함, 가족과 함께 웃으며 나눈 작은 순간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삶의 기록들이 이곳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나는 이곳에서 주어진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선물처럼 주어진 자연 속에서 아이와 함께 뛰놀고 다양한 체험을 즐기며 하루하루 추억을 쌓아 가고 싶다. 언젠가 이곳을 떠나더라도, 이천에서 보낸 사계절의 기억은 우리 가족에게 영원히 남길 바라며!



##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박진양

“아빠, 이제 다 왔어?”

“어디 보자, 지금쯤이면 보일 것도 같은데.”

파릇한 어린 벼들만이 우리를 환영해주던 이천에서의 첫 여름을 우리 가족은 오래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논을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많았던 그때였지요.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 이곳에서 아이들 키우며 혼자 우울해지면 어떡하지, 새로운 동네에 내가 잘 적응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괜한 걱정에 이 사오던 날 밤이 길었던 기억이 스쳐갑니다.

우리가 살게 될 동네는 군인 가족들이 모여 사는 군 관사아파트. 그곳은 동 관할 이지만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먼 소재지였답니다. 관사아파트에 들어오면 여느 아파트의 활기찬 느낌이다가도 길 건너 노을을 보러 가는 날이면 한적하고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자연이 주인인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런 곳이었답니다.

봄 내내 개구리가 논에서 울고, 여름에는 파릇한 벼들이 잔디 인형처럼 쑥쑥 자라났습니다. 가을에는 황금빛 벼들 위로 노을이 내려앉으면 더없이 예뻐던 그 논에 겨울에는 고라니가 신나게 뛰어다니던 변화무쌍한 이천의 자연은 우리 아이들에겐 선물 같은 곳이었답니다. 처음에는 작은 벌레도 무서워하던 둘째는 형이 잡아주던 들녘의 메뚜기, 잠자리, 사슴벌레와 친해져 갔고, 자연에 대한 애정과 호기심은 무럭무럭 자라났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연을 좋아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주변에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참 많아서였답니다. 이천 시민들 모두가 너무 사랑하는 설봉공원, 군 아파트

에서 멀지 않은 곳 이천농업 테마파크, 4계절의 변화가 아름다운 이천의 논까지. 우리 가족들은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이천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답니다.

이사를 오던 첫 해는 아직 둘째 아기가 걷기도 전이었답니다. 연고도 아는 사람도 하나 없던 저는 이천에서의 생활이 낯설고, 심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 '이천 농업테마파크'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심심한 낮 시간이면 아직 어린이집을 다니기 전인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자주 그곳을 오갔답니다. 규모는 작지만 알찬 쌀 전시관, 그 앞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던 소 동상이 있었고, 낮은 산 뒤로 유아 숲체험 공간이 있어 맑은 산 공기 쏘이며 뛰어놀다 땀이 뚝뚝 떨어질 즈음에는 그 아래 카페로 뛰어내려가 음료와 쌀 쿠키를 먹었던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미소가 지어집니다. 조용하던 그곳도 여름이면 주차 할 곳이 부족할 정도로 인기 최고의 장소였지요. 여름이면 개방을 하는 자연 물놀이장. 여름이면 아이들과 물놀이 준비물 단단히 챙겨 하루 해가 지도록 신나게 놀다오던 기억이 납니다. 저 또한 '이천 농업테마파크'를 떠올리면 높은 언덕위에서 예쁘게 노을져 가던 이천 논밭을 보며 위로 받던 그 때가 진하게 뇌리에 남아있답니다. 군 관사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였고, 이천의 감성을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었던 그곳은 이천 시내로 이사를 온 지금도 가장 애정하는 장소랍니다. 아이들이 초등기에 접어들 무렵에는 관사 건너편인 모가면 쪽으로 건너가 시골길을 따라 걷고, 자전거를 타고, 잠자리를 잡으며 호젓한 시골길을 즐길 수 있었답니다. 매일 체력을 단련 시켜야하는 아빠에겐 더 없이 좋은 러닝코스였고, 조용한 사색이 필요했던 저에겐 걷기 좋은 둘레길, 곤충 좋아하는 첫째에겐 최고의 채집장, 잠시도 가만 있지 않는 둘째에겐 길 전체가 호기심 놀이터였지요.

군인 가족들이 모여 사는 동네이기에 한다리 건너면 지인, 혹은 같은 부대였던 것이 처음에는 부담이이었으나, 아이들의 친구들이 생기고, 놀이터와 집을 오가며 편안하게 지내다보니 조금씩 부모들과도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각자 반찬을 조금씩 싸와 작은 포트락 파티도 열고, 별이 보일때까지 그저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부모들은 육아정보와 고민을 나누었던 참 소중한 시간들이었지요. 모두가 군인을 남편으로 둔 덕에 먼곳으로 떠나와 아이들을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낼때였기에 아빠들도 그랬겠지만 엄마들 사이도 전우처럼 끈끈했지요. 엄마들

사이가 끈끈했던 것처럼 아이들은 자기들끼리의 우정을 다지며 서로 각지로 흩어진 지금에도 이천에서의 추억들을 되뇌이며 연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 관사를 떠나 이천 시내에 자리를 잡고 살다보니 하늘을 웅장하게 날아오르던 헬기 소리가 그리워집니다. 가족들과 종종 설봉공원 산책을 하다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헬기를 보며 아이들은 아빠의 직업과 헬기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빠만큼 자란 아들들은 그렇게 관심사를 함께하며 군인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이천에 대한 애착심도 많은 아이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발을 던기 시작해서부터 서고, 걷고, 뛰며 바라본 이천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앞으로 아이들이 자라며 세상과 부딪힐때 문득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의 풍경이기를 바라봅니다.

잘 자란 벼들이 내려다보이는 하늘위로 헬기들이 위풍당당하게 날아오르는 모습, 그 모습이 아이들이 훗날 떠올릴 유년시절의 아름다운 한 장면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군복 너머, 이천에서 피어난 이야기’ 수상작품집**

**총괄** 도서관과장 김은미

**편집** 지방사서주사 최건수 지방사서주사보 허승연

**발행일** 2025년 11월 30일

**발행처** 경기도 이천시 문화교육국 도서관과

**주소**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종리동, 이천시청)

**연락처** Tel. 031-644-4361

**인쇄처** 디자인 북

**간행물 등록번호** 4070272-0001-01

